

수중용 방수 커넥터 개발

극동전자

극동전자정밀은 수중 1,000m의 수압에서도 견디는 수중용 방수 커넥터를 국내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품은 수중 600m 이상 지하관청이나 수중 음파탐지 장비 연결용으로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에 극동전자정밀에서 수중 1,000m의 수압에도 견디는 커넥터를 국산화함으로써 수입대체는 물론 수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극동전자정밀은 최근 한국기계연구원의 기능 및 성능테스트까지 끝나치고 이달부터 양산체제에 들어가기로 했다.

극동전자정밀은 지난해 5월 극동전선공업 커넥터팀을 분리 독립해 자본금 10억원으로 출발한 국방용 커넥터 전문업체다.

가전용 온도센서 수출 확대

동광센서공업

동광센서공업이 가전용 온도센서의 수출물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동광센서공업은 지난해부터 계속되고 있는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매출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대만과 홍콩·중국·일본 등 아시아지역에 대한 온도센서 수출물량을 확대, 전체 매출액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지난달 밝혔다.

이 회사는 생산공정 자동화와 원가절감 등을 통해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킨 결과 올들어 이달말까지 수출물량이 40만달러 어치에 달하는 등 해외 세트업체로부터의 주문물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올해 수출실적은 지난해보다 1백만달러 이상 늘어난 2백50만달러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자체브랜드 에어컨 '수피아' 생산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최근 「수피아(Supia)」라는 자체브랜드의 에어컨 신제품을 본격 출시했다.

대우전자가 이번에 출시하는 에어컨 신제품은 5~12평형의 벽걸이형 에어컨 6개 모델과 2개의 냉난방기를 포함한 13~31평형의 스탠드형 에어컨 14개 모델 등 총 20개 모델로 모두 대우전자가 처음으로 자체 개발, 생산한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모두 다량의 음이온 발생기능과 강력한 살균탈취기능을 채택했으며 특히 고급형의 스탠드형 에어컨에는 산화티타늄과 아연을 도금한 특수활성탄을 사용해 빛이 없을 때도 살균·탈취가 가능한 하이브리드 촉매를 탑재, 공기정화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대우전자는 이들 제품을 본격 출시함으로써 최근 빅딜파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어컨 사업 정상화를 추진, 당초 예정대로 스탠드형 에어컨을 중심으로 총 10만대 가량을 판매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VCR 첫 국산화

대우전자

대우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차량특성에 맞는 설계를 채용한 차량용 VCR를 개발했다.

이 차량용 VCR(모델명 DV-S125)는 운전자가 차에 설치돼 있는 액정표시장치(LCD)모니터 및 라디오를 통해 차 안에서 뮤직 비디오 등 각종 비디오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품이다.

대우전자는 이 제품을 3월 중순부터 시판할 예정이며 특히 6월부터 미국시장에 연간 20만대씩 수출, 미국내 차량용 VCR시

장을 주도한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이 제품은 차량전용 데크 메커니즘을 채용해 사용자 및 장착되는 차량에 따라 수평·수직 등 다양한 형태로 설치될 수 있으며 미국 자동차 빅3 규격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에 흔들림이 많은 상황에서도 깨끗한 화면을 제공한다.

또한 온도변화가 심한 차량의 특성을 고려해 이슬감지센서를 채용, VCR드럼에 이슬이 맺혀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고 자동차에서 공급하는 전압의 변화가 큰 점을 감안, 과전압 차단회로와 역전압 파괴방지회로를 사용해 안전성도 높였다.

대우전자는 이 제품을 자동차 안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을 크게 하고 야광을 채택했으며 차 안에 설치공간이 없을 경우 외장형 리모컨 센서를 달아 VCR을 트렁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폰 전파차단기사업 '출사표'

바이어블코리아

리튬폴리머전지팩 전문 생산 업체인 바이어블코리아가 휴대폰 전파차단기 사업에 본격 나섰다.

바이어블코리아는 최근들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휴대폰의 무분별한 통화로부터 보호해주는 전파차단기 공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휴대폰 전파차단기업체인 네트라인코리아를 설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전파차단기 관련 국제 특허를 지닌 이스라엘 네트라인사로부터 기술을 도입, 네트라인코리아가 조립 생산에 나설 예정인 휴대폰 전파차단기(모델명 C-Guard)는 휴대폰 사용자가 원하는 특정 시간 및 장소에 외부로부터 걸려오는 전화를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올 컬러필터 매출 1,500억 목표

삼성전관

삼성전관은 박막트랜지스터 액정표시장치(TFT-LCD)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컬러필터사업 부문의 매출이 97년 2백20억원에서 지난해 1천억원으로 성장하는 등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컬러필터사업 부문에서 지난해보다 50% 신장한 1천5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하고 내년에 2천억원의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천안공장에서 3백70×4백70mm, 5백50×6

백50mm, 6백×7백20mm 등 3개 라인에서 12.1인치를 비롯해 13.3인치·14.1인치 등 노트북용 및 모니터용 TFT-LCD 컬러필터와 STN급 컬러필터 등 다양한 컬러필터를 생산할 예정이다.

또한 이 회사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해 왔던데서 탈피, 해외 시장개척에 적극 나서 일본 및 대만의 관련 업체들과 공급계약을 추진하는 등 공급업체를 다각화해 나가기로 했다.

스피커 매출 '1천억 야심'

삼성전기

올해 삼성전기가 업계 처음으로 스피커부문에서 매출 1천억원 돌파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스피커부문에서 7백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던 삼성전기는 올해에는 미국 빅3 자동차업체에 스피커 공급을 추진하는 등 수출비중을 늘려 1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기는 올해에는 미국시장을 중점공략할 계획인데 스피커시스템의 경우 미국에 대형거대처를 개발하고 빅3 자동차업체에 자동차용 스피커의 공급을 추진해 지난해 55%였던 수출비중을 6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함께 DVD 등 디지털 영상매체와 돌비 입체음향 등으로 구성된 홈시어터시스템이 향후 시장을 리드할 것으로 보고 신소재를 활용,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스피커를 집중개발할 계획이라고 삼성전기는 밝혔다.

또 선진시장의 소비정체로 인해 스피커업체의 가격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차별화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스피커의 음질고급화와 다이내믹레인지(Dynamic Range) 확대, 소형 스피커의 초저음 재생기술 확보 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인치 컬러 TV 구매
가치 1위제품에 뽑혀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중형TV가 미 「컨수머리포트」지에 의해 올해의 구매가치 1위 제품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컨수머리포트」지는 최근 발표한 「99 구매가이드」에서 미국에서 시판중인 8개 브랜드 13개 중형TV에 대한 평가 결과, 삼성전자의 20인치 TV(모델명 TXG2045)가 이 중에서 구매가치가 가장 높은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TXG2045는 평가항목 중 화질을 나타내는 영상항목에서 13개 모델 중 유일하게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사

용편리성 항목 등에서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 잡지는 「TXG2045」가 비교대상 13개 모델 중 최고비싼 2백20달러의 가격대이지만 TV기능 중 가장 중요한 영상분야가 뛰어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의 제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전자제품 다음으로 일본의 산요 제품이 2위를, 도시바 제품이 3위를 제니스 제품이 4위를 각각 차지했다.

휴대형 전자레인지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국내 처음으로 배터리를 이용해 차안이나 야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전자레인지를 개발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지난 3년간 총 5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 최근 「NDFG방식의 직·교류 변환기」를 채용해 가정에서는 기존 전자레인지처럼 사용하고 야외에서는 차량용 배터리를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형 전자레인지 「My Wav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휴대형 전자레인지는 직류전원을 사용해도 최대 6백W 이상의 고출력이 가능해 일반 전자레인지

와 동일한 조리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 시장을 겨냥, 국내에 출시하는 한편 가족단위의 여행이 많은 미국 및 유럽 등지에 수출할 계획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 제품과 관련, 「신방식의 AC/DC 변환기술」등 14건의 핵심기술을 국내 및 미국·일본·유럽 등지에 특허 출원했다.

콤비 카드칩 개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차세대 IC카드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콤비카드칩을 개발하였다.

삼성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콤비카드칩은 범용 CPU를 채용할 수 있는 ISO14443타입 B콘덴서를 장착해야 하고 범용 CPU를 이용하기 힘든 타입A에 비해 빠른 시장확대가 기대되는 제품이다.

또 콤비카드의 용도에 맞게 CPU의 처리속도를 빠르게 했고 대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8kB의 EEP롬과 24kB의 롬을 채택시 사용처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보일 수 있다.

콤비카드 칩은 접촉방식의 IC카드와 비접촉방식의 IC카드를

모두 지원하는 IC로 현재 이를 선보이고 있는 업체는 필립스·지멘스 등 2개 업체에 불과하다.

콤비카드 칩은 최근 보안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인 응용시스템의 보안용, 전자상거래시스템, 전자금융시스템, 버스카드, 지하철카드, 전자지갑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사용된다.

19인치 평면모니터 공급나서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9인치 평면모니터(모델명 싱크마스터 9001FT)를 개발, 지난달부터 국내시장에 공급했다.

삼성전자가 삼성코닝(유리벌브) 삼성전기(편향코일) 삼성전관(브라운관) 3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싱크마스터 9001FT」는 수직 및 수평 도트피치가 각각 0.25mm와 0.20mm이고 수평주파수를 최대 96㎑까지 지원해 고해상도를 갖추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초선명 색소를 이용한 차세대 형광코팅 기술인 「스마트Ⅲ」를 채택해 기존 일반 모니터에 비해 색상 표현력과 휘도를 각각 17%와 30% 가량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올해 이 제품을 국내에 5만대, 해외시장에 50만대 공급할 계획이다.

프로젝션 TV 올 10만대 판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올해 프로젝트 TV를 연간 10만대 판매해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업체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부터 세계 프로젝트 TV 수요공략에 주력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40인치에서부터 61인치에 이르는 총 8개 모델을 내놓고 이 분야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특히 자사가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데다 크기와 무게를 크게 줄인 40인치 액정표시장치(LCD) 프로젝트 TV를 전략기종으로 삼아 디지털 TV와 함께 탄투스 브랜드로 북미시장을 집중공략, 올 한 해 동안 해외에서 총 7만대의 판매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프로젝트 TV에서 10만대 이상의 판매고를 달성할 경우 일본의 미쓰비시·소니와 토크슨 등 해외업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프로젝트 TV 시장에서 10위권에 진입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파이어니어 등 선발업체들을 제치고 7위권에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메모리사업 대폭 강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최근 미 페어차일드사에 매각한 부천 공장 대금을 비메모리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등 시스템 LSI(비메모리 반도체) 사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는 부천 전력용 반도체 공장 매각으로 확보한 4,550만달러를 바탕으로 향후 3년간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약 1조 3,000억원 이상을 투자키로 하는 내용의 중장기 시스템 LSI 사업 육성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분야의 경쟁력 배가를 위해 다층 배선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 능력을 오는 2001년까지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알파 프로세서와 통신용 반도체, 주문형 반도체(ASIC), 디지털 TV, 복합칩 등 전략 제품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주력 제품으로 육성하고 있는 알파 프로세서의 성능 향상을 위해 구리칩 기술과 차세대 웨이퍼인 SOI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올 매출 220억 목표

삼화텍콤

트랜스포머 전문업체인 삼화텍콤은 올해 고부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신제품 개발활동을 강화, 전년대비 15% 성장한 220억원의 매출을 달성키로 했다고 밝혔다.

삼화텍콤은 지난해 트랜스포머 가격이 크게 하락, 기존 「레이어」 타입 트랜스포머의 채산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앞으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간 슬롯형 트랜스포머의 생산량을 늘리고 표면실장(SMD)형 및 칩형 인덕터 등 고부가치 신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력해 이들 제품의 매출 비중을 지난해 10% 수준에서 올해 25% 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이 회사는 또 생산성 향상 및 생산원가 절감 등을 위해 국내 공장의 생산설비 자동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부가가치가 낮은 트랜스포머의 생산은 중국 및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점차 이전에 채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삼화텍콤은 이와 함께 올해 신규 생산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 추진, 수출비중을 지난해와 비슷한 30% 수

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C케이스업계 최초
ISO9001인증 획득

성일컴퓨터

PC 주변기기 전문업체인 성일컴퓨터는 최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PC케이스 품질관리 분야의 ISO9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성일컴퓨터는 국내 PC케이스 업계 최초로 ISO 인증획득에 성공함으로써 PC케이스 제품의 설계에서 개발·제조·서비스 전반에 걸친 품질보증을 공인받았으며 앞으로 해외수출에도 큰 도움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소형 TV 2개 모델 선보

아남전자

아남전자가 최근 국내경기 불황과 소비자의 소득감소로 다시 일기 시작한 소형TV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14인치TV(모델명 CK-14D81)와 20인치TV(모델명 CK-20D81)를 이달 말에 동시에 선보인다.

두 제품은 모두 디지털 영상처

리칩을 이용해 모니터와 같이 순차주사방식으로 영상을 재현하기 때문에 소형이면서도 매우 선명한 고화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두 제품은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하고 모니터형으로 디자인돼 컬러TV로는 물론 노래방 등의 모니터용으로도 적합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어린이 및 학생들의 음란 비디오 등 해로운 비디오 시청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청제한기능을 갖췄고 예약켜짐 및 시계기능, 영문캡션기능 등도 내장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남전자는 컬러TV와 모니터 기능을 동시에 지닌 이들 제품으로 소형TV의 점유율을 크게 높인다는 전략이다.

MOTION CONTROL
BOARD 개발 성공

아진전자산업

제어계측용 칩·보드 전문 벤처기업인 (주)아진전자산업은 자체 개발한 펄스 모터 칩(모델명:CAMC-5M)을 장착한 4축 Motion Control Board(모델명: AMC-4X)를 개발 성공하여 2월부터 양산, 판매했다.

AMC-4X은 스테핑 모터, DC·AC 서보 모터를 1μm이하로 정밀 제어하기 위한 전용보드

로 산업자원부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으로 개발된 펄스 모터 칩을 이용하여 4축 제어가 가능한 표준 ISA BUS 방식의 보드로서 MS-DOS, Windows 95, Windows 98, Windows NT 4.0 운용환경을 지원하며 기본적으로 30여 가지의 Libray를 제공한다.

이 제품은 Motion Control를 위한 기본 ISA보드와 Real Mode 및 Simulation Mode를 지원하고 Source Code Generation 기능을 가지고 있는 Agent (S/W)등이 패키지로 공급된다.

컬러브라운관 생산 1억개

오리온전기

오리온전기가 컬러브라운관 생산 1억개를 돌파했다.

오리온전기는 지난 80년 8월 TV용 컬러브라운관을 처음 출하한 이후 18년 5개월만에 생산누계 1억개를 돌파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이는 21인치 컬러브라운관 화면의 세로 길이를 4백48.7mm로 계산하면 총 길이가 4만4천8백70km에 달하는 규모다.

지구 적도를 한 바퀴 돌고도 4천5백95km가 남고 서울과 부산을 50회 왕복할 수 있다고 이 회사는 설명했다.

지난 69년 국내 처음으로 TV 브라운관을 생산한 오리온전기는 최근 국내 최초로 42인치 와이드 TV용 컬러 PDP(플리츠마 디스플레이 패널)를 개발, 오는 7월부터 이를 이용한 대형화면의 ‘벽걸이 TV’를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컴퓨터 보안시장 진출

에스원

삼성 계열사인 (주)에스원이 ‘정보 도둑’을 잡는 컴퓨터 보안 시장에 진출한다. 시큐리티업체인 에스원은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컴퓨터 정보 보안시장에 신규참여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에스원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컴퓨터 보안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에스원은 아웃소싱 방식으로 컴퓨터 보안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에스원이 컴퓨터 보안 시장에 신규진출을 결정한 것은 컴퓨터를 통해 기업 비밀을 불법으로 빼가는 산업스파이가 늘고 있는데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컴퓨터 보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시큐리티 업체중 인력 경비와 정보보안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곳은 에스원이 처음이다. 국내 보안시장은 그동안 캠프 등

인력·시스템 경비업체와 사이버게이트 등 컴퓨터 보안업체로 양분돼 왔다.

에스원 관계자는 이와관련, “대기업으로부터 정보 보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CDRW드라이브 국산화

LG전자

LG전자가 차세대 디지털 광기록 저장장치로 일컫는 CD리라이터블(CDRW) 드라이브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자체 개발, 월간 10만대 이상의 양산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LG전자가 지난 96년부터 총 50여억 원을 투입해 개발한 CDRW드라이브 (모델명 CED-8041B)는 4배속 CD리코더블(CDR) 쓰기속도에 CDRW 쓰기 2배속, CD롬 읽기 24배속의 성능(4×2×24배속)을 갖춘 2세대 제품으로 윈도95·98·NT 환경에서 기존 CD롬 드라이브처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또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FDD)와 같이 드래그 앤드 드롭 방식으로 손쉽게 데이터 백업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MB의 버퍼메모리를 내장, 데이터 저장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했으며 LG전자가 자체개발한 「최적기록을 위한 프로그램 기술 (Write Strategy)」과 「역공진 설계」로 안정적인 연속기록과 재생을 할 수 있다.

CDRW 드라이브는 지난해 세계 시장규모가 약 5백만대 규모에서 올해는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1천2백만대로 성장이 예상되며 국내시장도 4배속 제품 출시로 지난해 3만대 규모에서 올해는 9만대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LG전자가 독자적으로 CDRW 드라이브를 개발함으로써 국내외 CDRW 드라이브 시장에서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버터 냉장고’ 발표

⋮

LG전자

LG전자가 소비전력과 소음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춘 「인버터 냉장고」를 개발, 본격 출시했다

LG전자는 세계시장에서의 환경규제 및 소비전력 기준 강화 추세에 대응해 최근 6백80ℓ 용량의 「LG 인버터 냉장고」를 개발, 3월 1일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LG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인버터 냉장고는 에너지 최적화 이

른인 TLA(Thermodynamic Loss Analysis) 해석기술과 자체 개발한 최첨단의 인버터 기술을 적용해 압축기 가동시간 및 속도를 최적의 상태로 자동 조절함으로써 소비전력을 세계 최저 수준인 월 39kWh로 절감했다.

이 제품은 또한 CFC프리방식의 냉각방식을 채용했다.

대용량 특허정보검색 시스템 구축

⋮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은 최근 특허청에 특허실용신안 검색과 특허심사 기간 단축 지원을 위한 대용량 특허정보검색시스템(CD-ROM Juke Box System)을 구축했다.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은 특허 관련 정보를 담은 CD-ROM 3천장을 네트워크에서 모든 사람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으로 세계 최대 규모이다.

또한 이 시스템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유럽 등 다양한 형태의 세계 각국의 특허 관련 CD-ROM을 CD Networking 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나 SGML(Standard Generalized Mark-up Language)의 형태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의 최신 특허 관련 정보도 신속하게 검색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에 사용된 CD-ROM Juke Box는 기존에 CD-ROM에 있는 데이터를 광디스크 Juke Box에 옮겨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 비해 곧바로 CD-ROM을 검색함으로써 정보 검색 시간을 크게 줄이는 한편, 검색속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첨단시스템이다.

**자동차 엔진제어용
홀센서 개발**

⋮

LG하니웰

LG하니웰은 10여억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 자동차 엔진제어용 홀센서인 『CAM(캠) 위치검출 센서』를 국내 최초로 독자개발에 성공하여 최근 양산에 들어갔다.

자동차 엔진 내부의 실린더의 상사점을 인식하여 점화시기를 결정하는 『CAM 위치검출 센서』는 그동안 기술제휴나 도입품에 의존하던 실정이었지만, 이번 LG하니웰이 자체 기술로 국산화하여 가격경쟁력을 갖추므로 상당한 수입 대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술 대응력을 높일 수 있어 완성차 업계에도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또한 『CAM 위치검출 센서』는 제로 스피드(Zero Speed) 감지기능이 있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저감 규제정책을 만족시킬 수 있으며 저전류소모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 전류 소모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LG하니웰은 이미 이 제품에 대해 해외업체로부터 기술 검증을 받았음은 물론, 국내에서도 내구 실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최근에는 국내 완성차 업체와 납품 계약을 추진중에 있다.

LG하니웰은 향후 『CAM 위치검출 센서』 개발을 통하여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ABS센서, 실화감지센서, 크랭크 센서의 국산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해외 전장 시스템 업체를 통한 수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에칭 장비용 정전척 공급

케이씨텍

반도체 장비업체인 케이씨텍(대표 고석태)은 반도체용 에칭 장비에 부착되는 필수 소모품 가운데 하나인 정전척(ESC : Electrode Static Chuck)을 개발,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정전척(ESC)은 반도체 제조과정 중 에칭 공정에서 정전기를 이용해 웨이퍼를 고정시키는 기능과 함께 하부전극(Lower Electrode)으로서 역할도 수행하는 고가의 소모성 제품으로 기존의 기계적 웨이퍼 고정 장치보다

한단계 발전된 형태다.

특히 이번에 개발된 정전척은 전기적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면에서 기존 외산 제품보다 30% 이상 저렴해 현재 전량 수입 사용되고 있는 이 제품의 본격적인 국산대체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보고 있다.

무차입경영 선언

콤텍시스템

정보통신용 장비 제조업체인 콤텍시스템이 무차입경영을 선언했다.

이 회사는 최근 기명식 무보증 사모전환사채를 발행해 1백50억원의 자금을 조달, 부채비율을 0%로 낮췄다고 지난달 밝혔다. 그동안 대기업 가운데 무차입 경영에 들어간 경우는 있었지만 정보통신 중견기업으로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는 미국 SSGA사의 아리랑구조조정기금이 전액 인수했다.

사채 발행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주식으로 전환하게 되며 전환가격은 6천원(액면가 5백원), 표면금리는 연 1%다.

주식 전환시 아리랑구조조정기금측이 콤텍시스템 지분 중 7.5%를 갖게 되며 콤텍시스템의

대주주 지분은 35%선으로 낮아진다. 이 회사의 종전 부채비율은 1백20%, 자본금 85억원에 총부채 3백억원이었다.

콤텍시스템은 이번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확보된 자금으로 단기차입금 1백50억원을 상환,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부채는 현재 보유중인 예금 1백60억원을 가지고 곧 상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콤텍은 지난해 9백6억원의 매출을 올려 97년보다 17.5% 증가했으며 올해는 1천2백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구역내통신망(LAN) 장비 및 전송장비, 액정표시장치(LCD), 패스트 이더넷, 기가비트 이더넷 스위치 등의 제품을 생산,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SMD칩 서미스터 양산

한국쌍신전기

한국쌍신전기가 올 하반기부터 표면실장형(SMD) 부온도계수(NTC)서미스터를 본격 양산한다.

한국쌍신전기는 최근 2년간 4억여원을 들여 리튬이온 배터리와 온도보상형수정발진기(TCXO) 등에 사용되는 SMD 칩 NTC서미스터를 개발함에 따라 올 상반기

기까지 품질안정화와 수출향상 작업 등을 마무리짓고 하반기부터 제품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번에 개발된 제품이 가격 및 품질면에서 기존 수입제품과 동등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해말까지 월 생산량을 1백만개로 확대해 국내외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TC서미스터사업 호조

한국쌍신전기

한국쌍신전기는 올해 생산품목 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해 부온도계수(NTC)서미스터 사업 부문에서 전년대비 50% 증가한 6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가전용 온도센서의 생산량 확대와 함께 최근 수요가 살아나고 있는 자동차용 NTC서미스터 및 온도센서시장의 공략을 강화하는 한편 올 하반기부터 표면실장형(SMD) NTC 서미스터의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회사는 동남아와 남미지역에 편중됐던 주력 수출시장을 미주 및 유럽지역으로 늘려 지난해 12억원에 머물렀던 수출실적을 올해는 전체 매출액의 40% 수준인

24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MP3 플레이어 ‘사이버맨’ 출시

해태전자

해태전자가 차세대 디지털 휴대용 오디오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MP3플레이어인 「사이버맨」을 오디오 전문업체로는 처음으로 본격 시판한다.

사이버 시대의 워크맨으로 불리는 이 제품은 테이프나 CD없이도 인터넷이나 PC통신을 통해 다운로드 받은 MP3음악파일을 재생하는 신개념 오디오기기로 6~8곡을 저장할 수 있는 32MB 용량의 플래시 메모리를 기본 탑재하고 있으며 16MB 착탈식 스마트미디어카드로 저장용량을 확장할 수 있다.

80g의 무게에 담뱃갑 정도의 포켓사이즈를 실현, 휴대가 간편한 이 제품은 거치대 없이 PC와 직접 연결해 MP3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일반 충전식 건전지 1개로 최대 16시간 연속 재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 CD플레이어처럼 반복기능·랜덤기능을 지닌 이 제품은 저음 보강을 위해 메가베이스기능을 채용함으로써 CD수준의 음질로 음악을 감상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막강한 유통망을 지닌

해태전자가 오디오 전문업체로는 처음으로 MP3플레이어 판매 경쟁에 가담함으로써 시장 활성화에 한몫을 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디오 수출 빠른 회복세

해태전자

올들어 해태전자의 오디오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97년 말 아시아 최대 규모의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출업체인 해태전자의 부도사태와 연이어 터진 IMF환란으로 국내 오디오 수출업체들이 크게 흔들리자 썰물처럼 빠져나갔던 해외 주요 거래업체들이 요즘들어 하나둘씩 다시 해태전자로 발길을 되돌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지난해 하반기 퇴출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던 해태전자가 대출금의 출자전환을 통한 회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을 감지했기 때문이다.

또 한국을 떠나 다른지역에서 OEM 생산업체를 물색해봐도 해태전자만큼 설계·개발·생산·품질관리등 모든 능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업체를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던 것도 해외 바이어들이 해태전자로 다시 물려오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